

科学技术学会活動略史

10

韓國天文学會篇

1. 광복에서 6.25까지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어서 모든 문화사업이 우리 손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天文学者라고는 美国 Michigan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延禧專門学校에서 교편을 잡았었던 李源喆, 日本 第三高等学校를 마치고 소위 滿洲国 天文台에서 일하다 돌아온 金時中, 日本 東京大学 天文学科를 卒業하고 돌아온 李樂馥의 단三人 뿐이었다.

그러므로 光復 直後의 前 朝鮮總督府 氣象台를 接受한 사람도 위의 三人과 그밖의 몇사람의 氣象學者들이었다. 접수된 기상대는 얼마 後에 美軍政庁에 依하여 中央觀象台로 개칭되고 대장에는 李源喆, 부대장에는 鞠採表, 천문과장에는 金時中이 취임했고 李樂馥은 그 밑에서 天文課員이 되었다.

그들의 天文学上的 첫 事業은 1946년부터의 歷書를 편찬하는 일이었다. 金時中, 李樂馥은 美海軍天文台에서 發刊되는 American Ephemeris and Nautical Almanic은 구하여 역서편찬의 계산을 하였다. 첫째 것에는 약 3분의 系統誤差가 있었으나 다음부터는 바로잡아 졌었다고 한다.

이렇게 始作되었던 觀象台는 얼마 안가서 간부 사이의 의사충돌로 과장급인사가 대폭 사임하게 되자 金時中, 李樂馥도 다같이 觀象台를 떠나고 말았다. 그 後에는 李源喆 대장 자신이 歷의 계산을 했다고 한다.

1946년에 延禧專門学校가 大学校로 승격되고 物理氣象学科가 생기자 日政末期에 한때 中斷되었던 一般天文学의 강의가 再開되고 李源喆이 이를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관상대장으로서의 그 이상의 강의를 개설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한편 서울大学校 師範大学 物理科로 간 李樂馥이 그곳에서 一般天文学을 개강했고 194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学에서 球間天文学 강의를 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6.25사변이 터졌다. 이 사변을 통해서 觀象台는 業務가 中斷되었고 天

文課長 李圭滿이 行方不明이 되었으며 仁川에 있었던 日本光学製 6인치 굴절망원경이 없어졌고 많은 圖書와 고문서 그리고 日本人 和田雄台 関口鯉吉이 정리했던 天文關係 古記錄의 note가 없어졌다.

서울대학교의 李樂馥은 人民軍 海軍에 징발되어 갔고 釜山으로 피난갈던 金時中은 海軍士官學校에서 天文学을 강의하다가 後에 東亞大學으로 옮겼다.

## 2. 休戰에서 1964年까지

休戰이 된 以後에도 戰爭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많은 時間이 必要했다. 觀象台 天文課에서는 課長 徐龍化가 歷計算法을 배워서 대장을 도왔고 李대장이 물러난 後에는 그가 課員의 助力을 받으며 이 일을 물리과에서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 師範大學에서는 俞景老가 李樂馥의 일을 계승 복구하여 일반천문학 강의를 再開하였고 公州師範大學에서는 李殷晟이 천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文教部는 1957년에 高等學校 教科課程을 改編하여 地學을 選択으로 삽입하였고 이에 따라 權寧大, 孫致武 등 그외 3인과 鄭昌熙가 各各 地學教科書를 集필 발간하여 몇몇 學校에서 地球科學이 教育되었다. 따라서 약간의 天文学의 內容이 이 地學의 一部로 教育된 것이다.

1958년에는 드디어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에 天文氣象學科가 新設되었고 다음해에 玄正峻이 천문학교수로 부임하였으며 師範大學의 俞景老가 이를 도왔다. 1959년에는 師範大學에 地球科學教師養成을 目的으로 學科가 新設되어 여러 地球科學 科目과 더불어 天文学 教育이 實施되게 되었고 이것은 곧 慶北大學校와 公州師範大學에 전과되어서 같은 조직과 비슷한 天文学 教育이 實施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後에 朝鮮, 釜山, 全南, 全北의 여러 大學으로 퍼져갔다.

해방후 처음으로 天文学을 공부하려 美國에 간 사람은 方得龍이었다. 그는 Wisconsin 大學校에서 50年代 後半에 學位를 마쳤고 現在

Northwestern 大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그 얼마 後에 渡美한 趙慶哲은 60年代初에 Pennsylvania 大學校에서 學位를 마치고 美海軍 天文台에서 일하다 귀국했다. 1960, 61년에 서울대학교의 俞景老, 玄正峻이 잇따라 도미, 각기 Indiana와 Ohio주립大學校에서 3年씩 天文学을 배우고 돌아와서 在職學校에서의 天文学教育의 質을 올렸다.

1962년에 李殷晟은 그의 강의 Note를 整理하여 “天文学概論”을 英志文化社를 通하여 出版했다. 같은해에 成均館大學校에 宇宙物理學科가 新設되어 沈雲沢이 課長이 되었고 이어서 美製 Astralab 12인치 반사망원경이 導入 設置되었다.

같은 무렵에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과 師範大學에 各各 獨일제 6인치 굴절경과 10인치 반사경이 設置되었다. 이로써 初步段階의 教育用 망원경이 갖추어진 셈이다.

얼마 後 成均館大學에서는 이 망원경으로 IQSY project에 참여하여 太陽黑點의 觀측을 담당했다.

## 3. 1965年에서 現在까지

여기저기서 天文学의 教育이 始作되고 이를 담당하는 교수의 수가 늘게 되자 天文学會의 創立이 論議되었다. 드디어 1965年 3月 21日 春分日을 期하여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시청각 교실에서 韓國天文学會의 創立總會를 가졌다. 會員은 不過 二十餘名 이었다. 初大會長으로는 서울대학교의 玄正峻이 選出되었다. 이 天文学會의 創立에는 物理學會의 會則과 組職을 本받았으며 특히 金貞欽의 協力이 컸다.

1965年은 또 科學教育研究會가 出發한 해이고 이 研究會의 한 分會로서 地學教育研究會가 組織되어서 外國의 地球科學教育 특히 美國의 ESCP 地球科學教育의 研究導入이 始作되었다. 당연히 天文学分野의 教育研究도 이에 따랐다.

이해에는 또 서울대학교에 天文学專攻 석사 과정이 始作되었으며 外國留學의 事前教育을 겸하게 된 셈이었다.

이와같이学会의 創立과 教育의 補充 때문에 1965年은 解放後의 天文学 發展에 있어서 특기할 만 하다고 하겠다.

1967年 봄에 政府가 科学技術處를 新設하게 되자 天文学會에서는 国立天文台의 設立을 건의했고 이는 閣議에서 채택되어 科学技術處의 初代長官 金基衡이 이의 設立準備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해 여름에 美国에 갔던 俞景老는 天文台建設에 대한 基礎資料를 美国, 日本에서 얻어왔고 科学技術處에서는 美国으로부터 趙慶哲을 초청했다. 가을부터는 天文台 建設事務가 本格的으로 進行되어 国立天文台建設委員會가 科学技術處次官 李在澈을 委員長으로 하여 1967年에 足踏했다.

科学技術處측에서 당연적으로 觀象台長, 振興局長, 協力局長, 觀象台天文課長이 任命되었고 天文学會側에서는 沈雲澤 俞景老, 尹世元, 李殷晟, 李鉄柱, 趙慶哲, 玄正峻 과 宇宙科学分野에서 魏祥奎가 위촉되었다.

1968년부터는 高等学校 科学에서 地學이 필수로 教育되었으며 따라서 高等学校 水準의 天文学教育이 施行되게 되어 中等教育水準에서의 天文学教育이 始作되었다.

天文台設置委員會는 天文台를 本台와 觀測所로 나누는 方式을 定하고 各各의 후보지 選定과 設置할 器械의 選択에 注力했다. 觀測所 候補地로는 南漢山城에 連해 있는 망덕산과 광주여주군계의 양자산이 選定되었다가 一年間의 予備觀測까지 實施되어 망덕산으로 決定을 보았다. 그러나 城南市의 開發로 망덕산에는 觀測所를 設置할 수 없게 되었다.

1968년에는 天文学會誌가 創刊되었고 그後 每年 한권씩 發行되고 있다. 이해에는 또 延世大學校에 天文氣象學科가 創設되어 趙慶哲이 初代科長으로 부임했다.

天文台設置委員會는 계속 活動하여 새 觀測所 候補地의 選定과 設置할 望遠鏡과 附屬器械의 種類의 決定과 天文台의 職制등에 關한 일을 進行시켰다. 그러는 동안 趙慶哲, 玄正峻, 李在

澈은 世界 各地의 天文台를 視察하고 돌아왔고 沈雲澤은 日本 天文台를 訪問 調査했고 科学技術處의 事務職員 三名도 視察과 業務調査를 하고 돌아왔다. 이밖에 天文台要員 科전計副에 따라 獨逸의 Bam 天文台, 英國의 Greenwich 天文台, 日本의 東京天文台, 호주의 Canberra 大學등으로 李根命, 千文碩, 韓榮成, 朴成桓, 吳昶烈, 沈敬鎮, 李時雨, 李榮範 등이 短期 또는 長期로 科전되었다.

1972년에는 日本 東京天文台, 岡山天体物理觀測所의 石田五郎(Ishidu, Gore) 副所長이 초청되어 와서 天文台 關係 자문에 應했다. 그의 意見도 参考되어 觀測所는 小白山 第三蓮花峰으로 望遠鏡은 美国의 Boller and Chevens 製 24인치 반사경으로 낙착되었다.

이 무렵부터 美国으로 유학했던 天文学者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1973년에 Indiana 大學을 卒業하고 Wisconsin大學 Bartal 研究所에 있었던 尹鴻植이 서울大學校로, 1974년에는 Pennsylvania 大學을 卒業하고 계속 그곳에서 연구하던 羅逸星이 延世大學校로, 1975년에는 Rensslear 工大를 卒業하고 Maxplanck 研究所, Alabama 大學에서 근무하던 閔英基가 国立天文台로 와서 国内 天文学界가 갑자기 活潑하여졌다.

1973년 8월에 호주 Sydney에서 開催된 IAU (國際天文学聯合會) 總會에는 玄正峻이 科전되었고 이 IAU 總會에서 우리나라의 加入이 可決되어 우리도 그 會員國의 一員이 되었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天文学會員들의 著述活動이 점차로 活氣를 띄게 되어 “地球科学概論” “原色科学大事典 宇宙篇” 등의 공저본과 20卷에 가까운 번역문고본 등이 出版되었고 俞景老 李殷晟, 玄正峻의 共著인 世宗大王實錄中の “七政算内外篇”의 注釋번역본과 全相運의 國文版 및 英文版의 “韓國科学技術史”는 力作이었다.

1973년에는 延世大學校에서 天文学 碩士課程이 開設되었고 이어서 2년후에는 서울大學校에 앞서서 박사과정도 마련되었다. 1974년에는 서울大學校의 관악산 Campus 로의 종합을 계기

로 天文学科가 單一学科로 분산獨立하였다. 그 동안 小白山의 天文觀測所를 위하여 1973年 12月에는 24inch 반사경이 도착하였고, 小白山 第二蓮花峰(통칭 사갓峰) 頂上의 대지와 그에 이르는 道路用地가 確保되어 觀測所 dome과 宿舍의 建築과 道路 및 電氣工事が 始作되었다.

1974년 8월에는 돔과 숙사가 완공되었고 9월 17일에는 国立天文台가 正式으로 発足되었다.

이와 同時에 天文台設置委員會는 그 任務를 마치고 해산했다. 本台 事務室은 임시로 科學技術會館 三層의 一部를 빌려 쓰게 되었다. 発足時의 職制와 各各의 責任者는 다음과 같았으며 職員 總數는 27명이었다.

台長(閔英基) - 小白山觀測所(所長 吳昶烈)  
 天文計算室(室長 崔昌薰)  
 恒星天文研究室(室長 沈敬鎮)  
 庶務課(課長 俞仲根)

이어서 給水施設, 動力電氣工事が 74년 11월에 完工되고 研究棟은 1年後에 完工되었다.

한편 PAC資金에 依하여 4 inch 太陽觀測 望遠鏡이 부착된 8 inch 屈折鏡과 光電測光器, 眞空蒸着裝置 등과 더불어 工作機械等이 日本으로부터 75년까지는 거의 다 導入되었다.

天文觀測所의 建設이 進行되는 동안 大學쪽에서도 天文学 강의를 담당하는 教授의 자리가 늘어났다. 이미 60年代 全半에 慶北大學校로 갔던 李時雨를 이어서 釜山大學校로는 禹鍾玉 公州師範大學으로는 朴鴻緒, 全北大學으로는 李榮範, 全南大學校로는 吳圭東이 부임했다. 同時에 国立天文台 研究員으로 吳昶烈, 沈敬鎮, 崔昌薰 以外에 朴成桓, 鄭長海, 姜用熙, 韓台東, 李裕馥, 李勇三이, 国立科學館으로는 韓榮成, 어린이會館으로는 李權三이 들어가서 各各 專攻한 天文学의 일에 從事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4년에는 또 매우 유감스럽게도 成均館大學校는 宇宙物理學科를 廢科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서 天文学會의 活動도 급격히 活發하여졌다. 春季에는 서울, 秋季에는 地方에서 번갈아서 總會와 學術發表會를 가졌다. 50名 未滿의 會員中에서 恒時 10名에 가까운 때로는 그 이

상의 인원이 學術發表를 하는 盛況을 이루고 있으며 그 質的인 向上도 또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그 내용도 太陽과 雙星, 恒星 進化에서 星間物質 銀河系電波, 天文学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워졌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天文学會誌의 內容도 점차 充實하여 졌고 드디어 1976년에는 天文学會가 天文学會誌를 完全한 學術誌로 改編하는 同時에 별도로 “天文学會報”를 創刊 發刊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계속해서 外國으로 유학갔던 젊은 사람들이 學位를 마치고 또는 더 머물러 研究하다가 귀국하여 왔다. 洪承樹는 New York State 大學校를 卒業 Leiden 大學校에서의 研究生活 2年半에 서울大學校로, 李時雨는 Canberra에서 學位를 마치고 在職당시 慶北大學校로, 千文碩은 Canberra 大學校를 卒業하고 Oxford 에서의 研究生活 2年을 마치고 母校 延世大學校로 돌아왔고 우리나라 最初의 女子天文学박사인 李相珏이 Western Reserve 大學校로부터 돌아왔으며 金斗煥은 東京大學校를, 李根命은 New York 州立大學校를 마치고 계속 研究를 하고 있으며 불원 學位가 끝날 사람도 여럿이 있다.

天文学에서는 또 계속해서 研究와 과견 겸해서 姜用熙를 東京天文台로, 韓台東을 호주 Canberra 대학으로, 朴成桓을 日本 京都大學으로 1年~2年 期限으로 과견했다.

1976년에는 国立天文台는 天文学會誌와는 別途로 그 자체의 研究論文集인 “국립천문대 연구논문집”을 創刊하였으며 한편 小白山 觀測所에 90명의 工作室과 太陽望遠鏡 dome을 建設하였고 道路電氣 等 各種 補修工事を 推進했으며 光電測光장치 一式을 完成하여 恒星과 太陽의 觀測이 可能하게 되었다.

延世大學校에서도 IBRD 차관으로 日本五藤會社製 24inch反射鏡을 導入하였고 서울大學校에서는 AID 차관에 依한 資金으로 美國 Indiana 大學校의 Burkhead를 초빙하여 光電測光장치를 完成하여 研究觀測에 들어갔다. 또 地方大學校의 師範大學에서는 16inch反射鏡 또는 6inch 굴절경등을 導入하여 天文学教育의 充實化가 期待되게 되

었다.

1978年 9月 27~29日에는 小白山觀測所 竣工式을 아울러 國際觀測天文台 Symposium 을 서울과 小白山에서 가졌다. 國際協力關係의 資金난의 事情으로 外國人으로는 日本의 天文学者 石田五郎, 北村正利, 高瀬文田郎, 赤羽賢司의 4人이 참석하였을 뿐이었으나 國內에서는 俞景老, 趙慶哲, 尹鴻植, 羅逸星, 金榮德, 李時雨, 洪承樹, 閔英基等 多數가 참여하여 그 成果는 매우 훌륭했다.

1979年 가을 現在 國立天文台와 서울, 延世兩大學校 天文学科와 그밖의 여러 機關에 從事하는 天文学會員들은 天文学의 研究와 教育에 있어서 相當한 程度의 內實을 이룩하였으므로

이제는 來日의 비약적인 發展을 期하고 있는 狀態에 있다. 特히 이제까지는 不可能했던 研究觀測裝置의 一部 完成을 계기로 觀測研究의 論文이 發表될 것이 크게 期待되고 있다.

이밖에 첨가해야 할 것은 amature 天文家의 활약이다. 韓國 amature 天文家協會(KAAA)는 特히 羅逸星의 指導로 괄목할 만큼 成長하였으며 日本의 amature 天文家와의 集團的인 交流도 3回나 있었으며 이제는 相當한 性能의 望遠鏡도 그들의 손으로 製作되게 되었다. 또 서울 어린이會館에서는 育英天文會를 組職하여 天文学普及에 활약하고 있어서 모두 다 天文学의 一般市民으로의 普及이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과학과 기술”지 投稿案内 □

- = 論 壇 = 가. 學術論壇: 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內外의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새로운 海外의 科學技術 情報 紹介
- = 固 定 欄 = 가. 科學隨感: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의 內 내용을 소재로 한 것  
나. 漫畵: 科學技術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 것
- = 原稿枚數 = 가. 論壇, 기타 原稿: 24枚内外 (200字 원고지)  
나. 科學隨感: 8枚内外 (200字 원고지)  
다. 寫眞: 1枚 (명함판)
- = 其 他 = 外來語表記는 文敎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政府가 指定한 도량형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 (採択된 원고에는 所定의 原稿料을 드립니다.)

